

16/05/29(주) 주일예배 / 제목 : 온유한 자의 복 (마 5:5) p.5

(1)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Alexandre, BC 356-323)는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점령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20살의 나이에 마케도니아 왕이 되어 33살에 죽을 때까지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에는 그냥 ‘알렉산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은 똑같이 33년을 세상에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궁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정복의 야욕을 품으며 자랐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대패질을 배우면서 자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왕으로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죄수로 죽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수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왕좌를 정복했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알렉산더가 훨씬 더 성공한 사람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음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차지한 땅은 그리이스 반도를 비롯하여 페르시아와 동방의 거대한 나라인 인도까지 정복한 것입니다. 이런 그가 위풍당당하게 돌아오는 길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던 **고레스** 왕의 무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 왕의 무덤 비석에 새겨진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훗날에 이 땅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가 묻힌 이 한 평의 땅을 나에게 빌려다오. 나는 후일 반드시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 비문을 읽고 난 후 알렉산더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점령한 이 땅도 언젠가 다른 사람이 점령하겠지.’ 그리고는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손을 무덤 밖으로 나오게 하여 묻어 주시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영광을 손아귀에 쥐었던 알렉산더도 결국 세상을 떠날 때에는 빈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강한 자가 되어야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지적인 힘도 기르고, 자기 신념의 힘도 기릅니다. 그래야 남들을 정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 3대 정복자라고 말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했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드넓은 영토를 점령했던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세계는 절대 무력으로 점령될 수 없습니다. 때론 무력으로 점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력은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막강한 무력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으로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 / 1.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πραοσ 프라우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물질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줄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자유와 번영과 풍부를 가져다 줄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다윗이나 알렉산더 같은 전쟁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의 기대는 사라지고 실망감만 더하여 갔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온유에 대한 잘못된 견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온유를 약하고 비굴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힘없고 약한 사람 취급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은 부드럽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강포한 자를 굴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온유하면 무기력하고 나약한 것, 우유부단하고, 주대 없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유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면 손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유순해서는 안 되고 사납고 전투적이며,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고, 고집이 있어야 하고, 자기주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란 결코 마음 착하고 어수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온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당시에 온유(πραοσ)라는 말은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나운 짐승들이 훈련되어져서 길들어진 모습을 표현할 때 ‘프라오스’ 즉 ‘온유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호랑이나 사자나 사나운 개들을 훈련시켜서 주인의 말에 잘 복종할 때 ‘프라오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이 사람에게 쓰일 때는, 우리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려지고, 우리들의 죄성과 불같은 성격이 다스려져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던지 무조건 순종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평안과 부와 건강을 주실 때에만 온유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어 보이고 불행스럽게 보이고, 고난을 주실 때에도 아멘으로 순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시험이나 불행한 일을 만나면 참지 못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온유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유는 무조건 양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온유는 타인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온유는 남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갈대와 같습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허리를 굽힙니다. 태풍이 와도 갈대는 부러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강한 나무는 줄기가 부러지고 뿌리 채 뽑힙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온유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항상 복을 주십니다.

2. 온유한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가? - 모세, 다윗, 바울

모세는 한 때 강인하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까지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일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민수기 1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12: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하던 중이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여인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이방의 흑인 여자였습니다. 왜 모세가 에티오피아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지 성경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어쩌면 모세가 비방들을 만한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설령 아내인 심보라가 죽은 후라 할지라도, 모세가 굳이 새로 결혼을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해 맞아들여도 됩니다. 동족인 이스라엘 여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것은 비방받을 만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일에 대해서 일언반구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는지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라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변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되던 되지 않던 모세가 아무 까닭 없이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형과 누나가 자신을 비방할 때 모세가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잘못된 적이 없느냐’고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형님, 형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지요.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 만드신 것 기억 안 나세요?’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면 아론은 쥐 죽은 듯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어떤 말로도 형과 누이의 비방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니다. 변명할 말이 있을지라도, 또 비방하는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만큼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방을 하든지 믿음으로 참는 것입니다. 속에 콩하고 감추어두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로 우린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강인하고 강력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울을 대한 태도를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유리방황할 때 사울 왕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이유는 비록 악한 짓을 하는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일 수 있는 기회인데도 증거물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삼상26:9~11).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범죄 후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양 수천마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오자 그는 자기의 양을 잡은 것이 아닌 이웃의 가나한 사람 즉 한 마리 양양새끼 있는 것을 빼어 잡아 대접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다윗 왕은 그를 죽이라고 말함

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 왕은 왕관을 벗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재를 쓰며 '내가 범죄 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온유' 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한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역시 성질이 급하고 과격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일 그의 철저한 겸손과 온유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라고 했고, "죄인 중의 내가 괴수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3.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이란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현세의 땅이나 재산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상속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애써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거저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토지 소유권이 없다면 어떻게 차지한다는 말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누리다는 뜻입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치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고 온갖 종류의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별장에는 관리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관리인은 정말로 나무를 사랑하고 꽃을 사랑했습니다. 별장 주인은 일 년에 두세 번 정도 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온다고 해도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집을 지키면서 날마다 정원을 돌아보며 즐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별장의 진정한 소유자일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부자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누린 사람은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명목상 소유하려 하지 말고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쳐다보는 데 돈 안 듭니다. 아름다운 경치 감상하는 데 돈 안 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을 마음껏 밟고, 감상하고,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이웃 보십시오. 이삭은 한 때 블레셋 사람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라!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처분에 삶을 맡겼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땅에서 농사와 목축을 계속한 결과 농사가 잘 되어 100배의 소출을 얻었습니다. 양과 소가 번성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뭄과 상관없이 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땅을 파는 곳마다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기 위하여 두 번씩이나 양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시는 것을 내가 봤다!" 그 일로 인하여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이 뜻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처분을 따르는 사람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온화하고 유순한 성품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속에, 이렇듯 귀중한 진리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깨달으신줄 믿습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서 누리시는 복 받기를 온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핵심 :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온유한 자의 복

1.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개념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πρᾶος 프라우스)
2. 온유한 사람으로는 누가 있는가? - 모세, 다윗, 바울
3. 온유한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